

Back to the beginning – Genesis – Sermon Notes

Title: “11. Cain moves on and Seth is born”

Scripture: Genesis 4:16-26

Date preached: March 15th 2026

<p>Scripture: Genesis 4:16-26</p> <p>16 Then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on the east of Eden. 17 And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Enoch. And he built a city, and called the na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f his son—Enoch. 18 To Enoch was born Irad; and Irad begot Mehujael, and Mehujael begot Methushael, and Methushael begot Lamech. 19 Then Lamech took for himself two wives: the name of one <i>was</i> Adah, and the name of the second <i>was</i> Zillah. 20 And Adah bore Jabal. He was the father of those who dwell in tents and have livestock. 21 His brother’s name <i>was</i> Jubal. He was the father of all those who play the harp and flute. 22 And as for Zillah, she also bore Tubal-Cain, an instructor of every craftsman in bronze and iron. And the sister of Tubal-Cain <i>was</i> Naamah.</p> <p>23 Then Lamech said to his wives: “Adah and Zillah, hear my voice; Wives of Lamech, listen to my speech! For I have killed a man for wounding me, Even a young man for hurting me. 24 If Cain shall be avenged sevenfold, Then Lamech seventy-sevenfold.”</p> <p>25 And Adam knew his wife again, and she bore a son and named him Seth, “For God has appointed another seed for me instead of Abel, whom Cain killed.” 26 And as for Seth, to him also a son was born; and he named him Enosh. Then <i>men</i>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p> <p>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17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 □ □ □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 에녹이 이랏을 □ □ 이랏은 므후아엘을 □ □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 □ 므드사엘은 라멕을 □ □ □ □ 19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쉘라였더라 20 아다는 아발을 □ □ □ □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쉘라는 두발가인을 □ □ □ □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미였더라</p> <p>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쉘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p> <p>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준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되 하였더라</p> <p>25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 □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 □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 □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 □ □ □ 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p>
--

Review – The first murder

We pick up the story today following last week's horrific murder. We are going to find out what became of Cain and the generations that followed. However we get into that let us review the tragic

events of last time.

Chapter number four of Genesis begins by telling us about the life of Adam and Eve following their expulsion from the Garden of Eden. They leave the garden, find an appropriate place to settle down and decide to start a family. The first human child born on this earth is their son Cain. Shortly after a second son Abel is born. As time passes both sons choose a particular vocation or path in life. Cain follows in the footsteps of his father Adam and becomes a farmer. Abel has more interest in the livestock and becomes a shepherd.

We then skip forward an unspecified period of time to when it is time to go before the Lord in worship. As I mentioned last time this event raises some interesting question. How did they know when to do this? And how did they know what kind of offering would please God? Scripture, I'm afraid does not provide us with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We must simply assume that God had informed them of His expectations. It is I think a fairly safe assumption to make. It's seems unreasonable to expect a particular result or outcome without first providing input on what is required. It would therefore be somewhat unfair of God to simply expect Cain and Abel to know what He wanted. I think therefore that God told them what to do.

As we find out later in the bible God expects us to come before Him with our very best. Abel clearly has faith in God because he brings Him the firstborn from his flock along with the choice portions of fat. This means that he offered God his best. From his attitude and approach we can see that he is properly motivated. His heart and mind are properly aligned with pleasing and honouring God.

The same I am afraid cannot be said for his brother Cain. He comes before the Lord with an inferior offering. It is not the very best he has produced. As I pointed out last week it is far too simplistic to suggest that his offering was wrong simply because it was not a blood sacrifice. God would have accepted grain or a plant offering if the motivation and heart of the worshipper was right. Cain's was not. He was merely performing a duty, going through the motions. He was worshipping in an empty and disengaged way. His offering and his attitude showed that he did not truly have faith in God. He had no desire to properly honour and worship the Lord.

As a result God accepted Abel's offering but rejected Cain's. Cain was bitterly disappointed by this rejection. He threw himself to the floor and begged for God's forgiveness. He swore that he would try to be more like his pious brother Abel. If only this had been Cain's reaction. Instead, we read that he became angry and bitter. Resentment and jealousy took hold in his heart towards his brother.

God confronts him regarding his angry response. There was no need for him to react in this way. If he changed his heart attitude and showed real faith then God would accept his offering. He would then be eligible to receive God's blessing. Cain rejects God's advice and carries the burning bitterness away with him. He allows it to fester and grow inside.

Sometime later in a fully premeditated way he acts against Abel. He first engages him in conversation, lures him out into a quiet field and then brutally strikes him down. The very first murder has been committed. God again confronts Cain. He asks him where Abel is. God of course knows exactly what has transpired. He knew where Abel's broken body lay. He was fully cognisant regarding where Abel's blood had soaked into the soil. Cain's response to God is blunt in the extreme. He tells God that it is no concern of his, God has no right to even ask him the question.

Realising that Cain will never repent God moves directly into judicial mode. As punishment for what he has done he will no longer be able to farm the land. He is to be a wanderer without a home or place to settle. In effect this means he is to be exiled from his family. Cain feels that God had been unduly harsh. His punishment it too severe. He fears that there will be reprisals and he will be killed. Other members of the family will kill him for what he has done. God

shows him a degree of mercy by placing a mark or sign upon him. Anyone who dares to kill him will be punished severely.

복습- 인류 최초의 살인

오늘은 지난주의 끔찍한 살인 사건 이후에 가인과 그 후손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 전에 지난번의 비극적인 사건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 장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에덴동산을 떠나 적당한 곳을 찾아 정착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그들의 아들 가인입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되고, 아벨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몇 가지 궁금증이 들게 하는데, 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티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알려주지 않고 특정한 결과를 기다린다면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지 않은 채 그들이 알기를 기다리셨다면 다소 불공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그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태도와 접근 방식을 통해 그가 또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최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소한 최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피 흘리는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동기과 마음가짐이 옳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곡식이나 채소 제물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예배했을 뿐입니다. 공허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예배했습니다. 그의 제물과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은 이에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까요. 경건한 형제인 아벨처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을까요. 가인의 반응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은 그가 분노하고 원망했으며, 형제인 아벨에 대한 시기과 질투심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에 찬 반응을 책망하십니다. 가인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가인이 마음가짐을 바꾸고 진정한 믿음을 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고 마음속에 거친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부글거리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계획적으로 아벨을 해쳤습니다. 아벨에게 말을 걸고 한적한 들판으로 유인한 다음, 잔인하게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최초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인을 대면하셨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벨의 피가 땅 어디에 흘려졌는지도 아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극도로 무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할 권리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인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곧바로 심판하셨습니다. 가인의 죄에 대한 벌로 그는 더 이상 그 땅에

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집도 없고 장착할 곳도 없는 방랑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 □□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지나치게 기혹하여 자신의 형벌이 너무 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보복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표를 주셨습니다. 감히 그를 죽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16 Then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on the east of Eden.

When my daughter was little one of our favourite games was hide and seek. When we went to the playground or into the woods we played this game. We even played it in our small apartment. She became very adept at hiding from me. At times I had to give up, much to her glee and admit defeat. No matter how hard I sough I could not find her. Hide and seek is not a good game to play with God. Jonah found this out to his great cost. We can't hide or conceal ourselves from God. Since He is in all places at all times (omnipresent) we cannot ever be somewhere where He is not. So here in verse 16 we read something that should make us pause and think.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Some suggest that prior to the fall, and perhaps before the murder of Abel that human beings enjoyed a special kind of relationship with God. That His presence was manifested in some particular way and in a particular place (the Shekinah glory). This meant that one could come close and enjoy intimate fellowship with Him. This means that what Cain is doing here is making a conscious and deliberate move to break or end that relationship. He is wholly rejecting God and going out on his own.

Let us just put this action into perspective by reflecting on what had just happened. Cain had done a terrible thing. By rights God could have just struck him down. Instead, God had shown him mercy. Yes, he was to be punished, exiled from his family and destined to live life as a vagabond. But, God had vowed to be his protector. To keep others from attacking him. So his reaction here demonstrates tremendous ingratitude. Cain here has no word of thanks or gratitude for God's mercy. He simply packs his bag, turns his back and walks away from God.

He goes to settle, or dwell in the land of Nod. The Hebrew word “Nod” means “wandering” or “homeless.” It is actually related to the word for “wanderer, exile or fugitive” So we could say that the wanderer Cain chooses to settle or dwell in the land of the wanderer.

Where you might ask is the land of Nod? I wish I could tell you but scholars simply do not know. This is its only mention in scripture. All I can assert is what the bible tells us that it was somewhere on the east of Eden. So probably somewhere in Asia.

In truth its actual location is irrelevant. The key take-away is that it was a place outside of God's presence. A place in the world where God and what matters to Him is not considered. The land of Nod sounds eerily like much of the world today.

Let us continue.

16 가인이 여호와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더니

제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놀이 중 하나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놀이터나 숲에 갈 때마다 이 놀이를 했죠 심지어 우리의 작은 아파트 집에서도 했어요. 딸은 숨는 데 아주 능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포기해야 했는데, 딸은 무척 기뻐했고 저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딸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숨바꼭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놀이가 아닙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큰 대가를 치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omnipresent)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16 절은 우리가 잠시 멈춰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앞을 떠나서**

어떤 이들은 타락 이전 그리고 어쩌면 아벨의 살해 전까지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특정한 장소(쉬케나 영광 the Shekinah glory)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

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가인이 의식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갔습니다.

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되짚어 봅시다. 카인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를 즉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그는 벌을 받고 가족에게서 추방되어 방랑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 다른 이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카인의 이러한 반응은 엄청난 배은망덕을 보여줍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짐을 싸서 하나님께 등돌려 떠납니다.

그는 낫 땅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히브리어로 "낫Nod"은 "방랑하는" 또는 "집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방랑자, 추방자, 도망자"를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랑자인 카인이 방랑자의 땅에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낫 땅은 어디일까요? 알려드리고 싶지만 학자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낫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여기서 낫 땅은 에덴 동쪽 어딘가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시아 어딘가였을 것입니다.

□□□□ □□□ □□□ □□□□ □□□□.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밖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중요한 것과 상관없는 세상 속의 장소였습니다. 낫 땅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곳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 And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ore Enoch. And he built a city, and called the na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f his son—Enoch.

As I explained to you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eries a very large span of time is covered in the first eleven chapter of Genesis. Approximately 2000 years. This means that some care is required. The things we read are not always occurring immediately after what comes before them. Here is a perfect case in point. Some time has clearly passed. Exactly how long is not specified. But certainly a number of years. Cain it seems has settled in Nod and decided to make this place his home. As many men do at such a time in life he looks around for a wife.

This is the point where many people raise a hand and ask for clarification. Bible critics frequently seize upon what we read here with great glee thinking they can use it stump believers.

“Excuse me, there were only three people in existence at this time. Adam, Eve and Cain. So where did Cain's wife come from?”

That's a good question. Do you have an answer? I hope your answer is not that God must have made other people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and Cain met one of these. That is not the correct answer. Here is the solution to where Cain got his wife.

In ancient genealogies it was common to only name or identify offspring who were significant in the ongoing story. Less important, or insignificant figures were just skipped over. This meant that, technically speaking ancient genealogies were incomplete. We know this to be true. The bible for example tells us that Adam and Eve had additional children. In Genesis 5:4 we read

After he begot Seth, the days of Adam were eight hundred years; and he had sons and daughters.

However, the bible only records the names of Cain, Abel and Seth. The other children go unnamed. There could have been a considerable number of children born either prior to and after the arrival of Seth. Adam lived a further 800 years after the birth of Seth. That is a lot of time to father children. So just for fun let's speculate. Let's imagine the best case scenario.

Let us suppose that both Adam and Eve remained in perfect physical health all their long lives. This is not such a stretch. God had only just created them and they were still in pristine condition. Let us also suppose that Eve remained fertile and able to bear children for all this time. 800 years divided into 9-month periods (assuming no breaks between children) allows for the birth of 1000 babies. Twins appear on average once in every 86 births meaning 11 babies born as twins. This means they

could potentially, at the very upper limit of had as many as 1011 children.

I know this seems extremely far-fetched. But even if they only had 10% of the maximum possible children that would still give us 101 children. Josephus the Jewish historian quotes a tradition that claims that Adam and Eve had 56 children, 33 sons and 23 daughters.

So back to the question. Who did Cain marry? Well, he obviously married one of his sisters or perhaps a niece.

I know what you are thinking. This is gross! Incest is wicked and wrong how could God allow such a thing to take place.

Well, at this point in human history it was the only available option for populating the earth. Therefore at this time it was not a forbidden practice. Later on when the population increase made the practice unnecessary God prohibited it (Leviticus 18). This meant that inter-family marriage continued for approximately 2,500 years. Abraham as you may be aware in married his half-sister Sarah (Genesis 20:12).

We should also bear in mind that one of the reasons that incest is prohibited today (aside from it being morally wrong) is the high risk it carries of genetic abnormalities in the offspring. When two people of very similar genetics have children together, there is a high risk of their recessive characteristics becoming dominant.

This decline in human genetics came about due to the impact of sin. Over time the human genetic code has become increasingly damaged or corrupted. For each successive generation the genetic defects are multiplied, amplified, and then passed on. But for Adam and Eve and those first few generations these defects were largely absent. It meant they could intermarry and produce children without the genetic issues we see today. Let's get back to the story.

Cain and his wife produce a son. His name is Enoch (not the more famous Enoch who appears in Genesis chapter 5). In Hebrew his name is pronounced *Chanok* and it means “consecration or dedication.” Cain was evidently very proud of his son and built a city naming it in his honour. Now we probably shouldn't get carried away by the idea of a city being built. It's unlikely that this was an ancient New York. The Hebrew word used here is the word *ayar or ir*. It could mean a city, town, village or just a walled or fenced in settlement. However in its broadest sense it could refer to an encampment or even just a collection of tents. So hold that thought when you read that he was building a city.

Let us read on and find out more about the line of Cain and the birth of society.

17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설교 시리즈의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창세기 1 장부터 11 장까지는 약 2000 년에 달하는 아주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구절이 항상 그 이전 구절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완벽한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흘렀는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 해가 지난 후입니다. 카인은 늦에 정착하여 가정을 갖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시기에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그는 아내를 구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비평가들은 이 구절을 이용하여 기독교인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당시에는 아담, 이브, 카인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카인의 아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알고있는 질문입니다. 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다른 곳에 또다른 사람들을 만드셨고 가인이 그중 한 사람을 만났다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옳은 답이 아닙니다. 카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손과 사회의 탄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8 To Enoch was born Irad; and Irad begot Mehujael, and Mehujael begot Methushael, and Methushael begot Lamech.

We arrive here in verse 18 at what will be the first of many genealogies contained within the Book of Genesis and indeed the Bible. To contemporary readers genealogies are often a little dull and unexciting. Just a list of who fathered whom. Be honest are you excited when you come to a genealogy in the bible. But we should remember that they serve a valuable role in anchoring the text to a historical context, and helping to approximate the passing of years and generations. As I told you back in the introduction to this series the accounts that we read in Genesis tell the stories of real men and women who were born, lived, and died at a specific period in the past. We are not reading a collection of myths, fables or legends. So the genealogies, tedious as they might appear on the surface help us to remember and recognize that we are reading real and lived history.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 genealogies are not inclusive and were never meant to be read as such. As I mentioned before there are gaps or omissions. Often only key or notable family members are included. They are intended to show the flow of bloodline from one person to the next, not to give exhaustive details on an entire family line. So we should therefore not assume that these were the only children produced by these particular fathers. Enoch had a son called Irad. Irad fathered Mehujael, and Mehujael fathered Methushael, and Methushael fathered Lamech.

Let us read on and learn a little more about Lamech.

18 에녹이 이랏을 □ □ 이랏은 므후아엘을 □ □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 □ 므드사엘은 리멕을 □ □ □ □

18 절에서 창세기, 나아가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수많은 족보 중 첫 번째 족보를 봅니다. 현대 독자들은 족보를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여깁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족보를 접할 때 흥미를 느끼시나요? 하지만 족보는 본문을 역사적 맥락에 연결하고, 세월과 세대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리즈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거 특정 시기에 태어나고, □ □, 죽은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우화, 전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족보는 겉보기에는 지루해 보일 지라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성경 족보는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애초에 그렇게 의도하지도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족보에는 누락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흔히 중요한 가족 구성원만 포함합니다. 이는 혈통이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전체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만 특정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은 이랏이란 아들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아엘을 □ □ 므후아엘은 므드사엘을 □ □ 므드사엘은 리멕을 □ □ □ □

이제 리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 Then Lamech took for himself two wives: the name of one was Adah, and the name of the second was Zillah.

Nothing more is mentioned about the other men in this family line. But then we come to Lamech. We are going to learn a little about him. His name means “warrior” or “conqueror.” Unfortunately he was not fighting for God or for righteousness. In fact, he takes an ignoble place in history as being the first bigamist. He got married to a second woman whilst he was already married. In doing this he also became the first polygamist. Someone married to more than one person at the same time. We are told the two women in question were Adah and Zillah.

Now you may again be wondering why God did not step in and stop the practice of polygamy. As you will remember from chapter two it was God's desired will that a marriage consist of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Gen 2:24).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joined to his wife, and they shall

become one flesh.

That's pretty clear. There is nothing confusing or ambiguous about that. A man, singular joins to a woman, singular and they become one flesh; married. This is God's design, or intent when it comes to marriage. It has never, nor will it ever change. God has never shifted His opinion on what constitutes marriage. This means that any other permutation is not a marriage. One man and two women, three women and four men, two men, two women, a woman and a horse, a man and a hamster. None of these wins God's approval. Sorry to anyone who thinks it is right or progressive to be encouraging same sex marriage or polygamy. Such a union is not marriage and will never be blessed by God.

So Lamech is clearly rejecting God's plan for marriage and creating something entirely new. So we might imagine that God strongly disapproved of Lamech's actions. He did. So why then doesn't scripture record his displeasure?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bible records many things of which God does not endorse or approve. So we must not take His "silence" here to mean his tacit approval. At times He allows human beings as free moral agents to act in sinful ways. So what we are reading here is an instance of what is known as God's permissive will. This term refers to those events and actions that God allows, even though they may not reflect His moral desires or prescriptive commands. In this case polygamy is permitted even though God strongly disapproved. We see God's permissive will regarding polygamy demonstr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in the Old Testament. Abraham, for example is not condemned for cohabiting with Sarah and Hagar. Jacob is not chastised for marrying both Leah and Rachel.

However it is worth us remembering that many of the polygamous households in the OT suffer most unpleasant and shattering experiences precisely because they lived in a way that offends God. If you want some evidence of this look at what happened to both King David and King Solomon.

So despite not being a good or godly man Lamech would go on to father some sons who brought societal changing innovations into existence. Let's look first at his son Jabal.

19 리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싹리였더라

이 가족의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 리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사warrior" 또는 "정복자conqueror"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 또는 의로움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의 중혼자bigamis 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최초의 일부다처자polygamist 가 되었습니다. 일부다처자란 두 명 이상과 동시에 결혼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두 여자는 아다와 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부다처제를 막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죠? 2 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기를 원하셨습니다(창세기 2:24).

이러므로 □□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말씀은 매우 명확합니다. 혼란스럽거나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즉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의도입니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조합도 결혼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와 네 남자, 두 남자와 두 여자, 한 여자와 말, 한 남자와 햄스터. 하나님께서는 이 중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이나 일부다처제를 장려하는 것이 옳거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러한 결합은 결혼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리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리멕의

행동이 분명히 못마땅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쾌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으시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을 그분의 묵시적인 승인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도덕적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permissive will 이라고 알려진 한 예입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도덕적 의지나 그분이 주신 계명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건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일부다처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사리와 하갈과 함께 살았지만 정초받지 않았습니다. 아곱은 레아와 라헬 두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부다처 가정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참혹한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찾고 싶다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세요.

리멕은 선하거나 경건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야발을 살펴보겠습니다.

20 And Adah bore Jabal. He was the father of those who dwell in tents and have livestock.

Jabal was one of at least two sons born to Adah. As I said before biblical genealogies often focus only on the important or notable people within a particular family line. This then does not mean that Jabal and Jubal were the only children born to the union of Lamech and Adah.

They were in all probability two of many children. But, they are included here for their notable contributions to civilisation. Let us look first at Jabal.

The first contribution made by Jabal was that he was the father of nomadic peoples. When the bible speaks here of Jabal being the “father” it means that he was the founder or originator. He was the first to start, or perfect the practice of living in tents and moving around from place to place. We are speaking then of people groups such as the Bedouin's who choose to live a nomadic lifestyle. They elect to travel and have no settled place that they call home. The invention of the tent made such a lifestyle possible. Without a tent one would be forced to construct a temporary shelter whenever one stopped or else be open to the elements.

His second contribution was that he was the originator of those who have livestock.

Now, you may stop me at this point and query whether this has actually been Abel. He was a shepherd and since he came before Jabal wasn't he the originator of this practice. How does Jabal and what he did differ from Abel? We are forced to speculate a little here.

Since the death of Abel it may have been that animal husbandry had been forgotten or ignored. So perhaps it means that he restarted the practice of keeping and raising animals. We might also consider how this practice took place. Abel, as far as we know lived in a fixed settlement. Jabal was a wanderer. So maybe it is speaking of the practice of travelling around with flocks of animals. This is obviously a different thing to raising animals in one place on a farm.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comes in what animals are in view. Abel tended to “sheep” and probably goats (*tsone*). In Jabal's case the word “livestock” *miqneh* is used. This word is much broader in scope and includes animals like cattle, camels and donkeys as well as sheep and goats. So maybe he was the founder of keeping a wider range of domesticated animals.

Whatever the specifics it is clear that Jabal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The same can also be said for his brother. Lets look at him next.

20 아다는 아발을 □□□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발은 아다에게서 태어난 적어도 두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 족보는 특정 가문 내에서 중요한 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발과 유발이 리멕과 아다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자녀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많은 자녀들 중 두 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명에 대한 중대한 공헌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아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발의 첫 번째 공헌은 유목민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아발을 "조상 father"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유목 문화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천막에서 살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생활 방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유목 생활을 선택한 베두인족과 같은 민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정착지 없이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장막 tent 의 발명은 이러한 생활 방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장막 tent 이 없었다면 멈출 때마다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공헌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아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아발보다 먼저 살았으니 가축 치는 일의 창시자가 아벨이 아니었을까요? 아발과 그가 했던 일이 아벨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약간의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 가축 기르는 일이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아발이 가축을 치는 일을 새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 치는 일이 행해졌던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아벨은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아발은 유랑자였고, 아마도 가축 떼를 몰고 이동하는 삶을 사는 유목민들의 조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곳에 정착하여 목장에서 가축을 기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어떤 가축을 기르는가입니다. 아벨은 "양 sheep"과 아마도 염소(tstone)를 길렀을 것입니다. 아발의 경우 "가축 livestockes"을 뜻하는 단어인 *미크네(miqneh)*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며 양, 염소 뿐만 아니라 소, 낙타, 당나귀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그는 더 다양한 가축을 기르는 문화를 시작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아발이 인류 사회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 His brother's name was Jubal. He was the father of all those who play the harp and flute.

Jabal's brother also born to Adah was named Jubal. Jubal, whose name means "jubilee" was a musician. He was the originator of at least two musical instruments and by extension the concept of music itself. If you are in any way a fan of music in whatever form it takes you can thank Jubal. We are told of two instruments that he invented and played. The "harp" is the Hebrew word *kinnor*. It refers to a stringed harp or a lyre. The "flute" *ugab* in Hebrew was most likely a reed pipe. Similar in design to a modern day recorder. However basic these first instruments may have been their invention laid the foundation for future musical development. All the stringed and wind instruments in existence today owe their origin to Jubal.

It's worth just pausing here to contrast what God's Word teaches us about our ancient ancestors with what secular historians promote. In the secular world ancient peoples are generally considered to be little more than dumb brutes. Neanderthals who stomped around clubbing things to death and who enjoyed a very primitive animalistic culture. The bible very neatly pops this illusory bubble.

We are just eight generations from Adam and already we can see that creative and artistic culture is blossoming. People were farming the land, raising a variety of animals and writing, playing and enjoying music. So far from being a bunch of ignoramuses.

Let's find out about the offspring from Lamech's other wife.

21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담에게서 태어난 아발의 동생 이름은 유발이었습니다. 유발이란 이름은 "환희jubilee"를 의미하며,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악기를 발명했고, 더 나아가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창시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음악을 좋아한다면 유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가 발명하고 연주한 두 가지 악기가 언급됩니다. "수금halp"은 히브리어로 $\square\square\square$ kinnor 이고,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통소flute"는 히브리어로 $\square\square$ ugab 인데, 아마도 갈대 피리로 오늘날의 리코더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 초기 악기들이 단순했을지라도, 그 발명은 미래 음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현악기와 관악기는 유발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대 조상들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과 세속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속 세계에서는 고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짐승 정도로 여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돌아다니면서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원시적인 동물적 문화를 기졌다는 그들의 환상이 성경에 의해 아주 깔끔하게 깨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불과 8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문화가 꽃피고 있었습니다. $\square\square\square\square$ 경작하고, 다양한 가축을 기르고,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리맥의 다른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에 대해 알아보시다.

22 And as for Zillah, she also bore Tubal-Cain, an instructor of every craftsman in bronze and iron. And the sister of Tubal-Cain was Naamah.

We turn next to deal with the children born to Lamech's other wife Zillah. Two of them are mentioned by name. The first named child is Tubal-Cain. He was the originator or founder of metal-working (metallurgy). Two particular metals are singled out, bronze and iron.

Tubal-Cain discovered, perfected and then passed on to others the ability to use metal to make tools. This most likely included everyday tools for working the land and construction but also the use of metal for military purposes. Metals tools and weapons are far superior to ones made out of wood, stone or bone. To be able to smelt metal and fashion it into useful tools represented a major advancement. The practice has a long and fascinating history.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bronze and iron artefacts dating back to the ancient cultures of Egypt and Sumeria.

We also learn from this verse that Tubal-Cain had a sister called Naamah. It's actually quite rare for girls to be named in Genesis. Even the wives of the patriarchs in Genesis 5 are not named. So it's interesting that with Lamech, this godless descendant of Cain, we see get the names of his two wives (Adah, Zillah) and his daughter.

The name Naamah means "pleasant," "graceful," or "gorgeous." As I said before when people are named in genealogies it usually implies that they were important or notable. This may be the case for Naamah but we simply do not know what she did. She may have been the mother of make-up or the hairbrush. Sadly the bible records nothing more about her.

Let us continue.

22 샐라는 두발가인을 $\square\square\square$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이제 리맥의 다른 아내 샐라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보겠습니다. 그 중 두 명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두발가인이고, 금속 세공(아금술)의 창시자였습니다. 특히 구리와 쇠라는 두 가지 금속이 언급됩니다.

두발가인은 금속을 사용하여 도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견하고 완성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도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금속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는 나무, 돌 뼈로 만든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금속을 제련하고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와 수메르 문명에서 청동과 철로 만들어진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에게 나이마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자아이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창세기 5 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아내들조차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인의 불경한 후손인 리멕의 경우에는 그의 두 아내(아다, 질라)와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이마라는 이름은 "즐거움", "우아한",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나이마도 그랬을 수 있지만,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화장품 또는 빛의 발명가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23 Then Lamech said to his wives:

**“Adah and Zillah, hear my voice;
Wives of Lamech, listen to my speech!
For I have killed a man for wounding me,
Even a young man for hurting me.
24 If Cain shall be avenged sevenfold,
Then Lamech seventy-sevenfold.”**

We come here to another first in the book of firsts. In literary terms what we have here is the very first poem or song that appears in the bible. We might have hoped for, or even expected that the first poem would be recited in praise of God. A poem perhaps extolling God's amazing creation. That is sadly not what we get. What we actually get is a poem of boastful revenge. A poem delivered by the beastly Lamech to his two wives. It's interesting that they made up his audience. He didn't recite this poem in the pub, or out on the construction site. It's a poem bragging about his martial prowess but he delivers it to a safe, non-challenging audience made up of his wives. Two listeners that were highly unlikely to question or challenge what he said. Some have even speculated that it is a thinly veiled way of cautioning these women. That what Lamech is really doing is warning these women of what will become of them if they anger or hurt him.

So, what's the poem all about? Lamech begins by demanding the attention of his wives. Stop what you are doing, put down that vacuum cleaner for a moment and listen carefully to what I have to tell you. This is a poem of pure braggadocio. Lamech, let us not forget is five generations on from his distant ancestor Cain and yet he shares that man's anger, violence, and arrogance.

He brags about his sin in an almost unbelievable way. He tells his wives almost gleefully that he killed a man for wounding or hurting him. Now I have to say that there is some scholarly disagreement here.

Some scholars argue about whether he did actually kill a young man. The suggestion being that this is a mere brag. He is proudly declaring that he would kill a young man if this person dared to wound or hurt him.

Others disagree and argue that he is recounting a real killing in which he participated.

Let us for a moment assume that he had actually killed a young man for some “slight” wound that was inflicted upon him. As the saying goes there are always two sides to every story. We do not know what happened and why Lamech responded in such an overly aggressive way.

Whatever actually transpired Lamech's response is clearly out of all proportion. In judicial matters we have what is known as the law of proportionality. It states that a response to some provocation must be fair, reasonable and balanced. If someone accidentally bumps into you on the subway it is hardly reasonable (proportionate) that you punch them in the face and kick them as they lie unconscious on the ground.

So consider Lamech's response. He was hurt or wounded and he resorted to murder. The Hebrew word for “kill” that is used here is *harag*. It means to “kill,” “slay,” “destroy,” “murder” or “smite.” It is the same used to describe the murder of Abel (Gen 4:8) and Moses' murder of the Egyptian (Exo 2:14). Hardly the act of one acting with restraint or in self defence.

Enosh means “frail,” “weak” or “sickly.” On the surface its not a particularly desirable name for a child. But we should probably view it as being intended as a counterpoint to Lamech. He boasted of his human strength and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apart from God. Enosh the “frail man” represents the correct approach we are to adopt towards God.

We are frail and weak as human beings. Our strength comes only through Him.

The verse ends with the interesting phrase, **Then men began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Many bible commentators regarded this verse as being the first reference to “prayer” as we know it in the Bible. This may indeed be the case. It is certainly an example of public worship. We might also rightly identify it as the very first act of revival. Certain people at that time in history recognised their weaknesses as human beings. They noted how far they had fallen. Things were not as they should be. Therefore they realised their desperate need for God. Lord we need you. They came together therefore to call upon or proclaim His sacred name.

That's the perfect note on which to finish. Next week Lord willing we be looking at chapter 5.

26 셋도 아들을 궤 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궤 궤 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여기서 셋의 가문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에노스 Enosh 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연약한", "니약한"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에게 지어줄 만한 바람직한 이름은 아니지만, 이 이름은 리맥과 대조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리맥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인간적인 힘과 생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연약한 자" 에노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니약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이 구절은 "**그 때에 궤 궤 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는 흥미로운 구절로 끝맺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공적인 예배의 한 예입니다. 또한 부흥 운동의 첫 번째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마치기에 완벽한 구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5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lessons drawn from today's study.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The need to hold onto righteousness

We exist within a world that is openly hostile to God. Wherever we might care to look we see sin celebrated, excused and even lauded. This is nothing new. At the moment that Adam and Eve chose to rebel and disobey God the world began to spiral into a state of decline. It was into such a world that the offspring of Adam and Eve were born. They, like all of us were faced with a choice. Choose God and try to live in a way that honours and pleases Him. Or do as you please. Live in a carnal way placing what satisfies you at the centre of your life. This was clearly what motivated Cain and those that followed in his line. This was best exemplified by Lamech. A man who rejected God's ideal for marriage, thought nothing of killing and boasted that his destiny lay in his own powerful hands.

At times, it is hard to live in a good and God honouring way. It is a constant struggle to hold onto

